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보훈가족 이불 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이준기)는 5일 보훈가족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돕기 위해 동절기 이불을 후원했다. <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FC 연건회원권 구매



광주FC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6일 광주 북구 신안동 중흥건설 1층 미팅실에서 정원주 광주대표이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이경노 이사(광신중흥건설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건회원권 구매 및 전달식을 가졌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시즌권 50매(1매당 25회 차감방식)를 구매했으며, 연간 최대 1250명이 관람 가능하다. <광주FC 제공>

동강대, 신종 코로나 예방 마스크 배부·소독제 배치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6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보건실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건물마다 손소독제를 배치해 적극적으로 '신종코로나' 예방에 나서고 있다. <동강대 제공>

서광주농협 '2020 정기총회' 우수 조합원 시상



서광주농협(조합장 문병우·가운데)이 최근 본점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우수 조합원을 시상했다. <서광주농협 제공>

“그림으로 인권운동...차별 없는 세상 꿈꿔요”

광주서 인권단체와 전시회 개최 이선일 작가

세월호 잠수사·시위 현장 등 그려 한때 블랙리스트 오르기도 “현실 알리는 게 예술가 역할...언젠가 5·18 관련 그림 그릴 것”

‘인권 화가’ 이선일(53) 작가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하 동행)과 함께 ‘그래도 우린 연주를 해야 한다’전을 열고 있다. 전시는 김넷과 지하갤러리(동구 구성로 204번길 13)에서 오는 9일까지 계속된다. 지난 2018년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오늘, 인권을 그리다’전을 잇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권을 주제로 그린 이 작가의 작품 25점을 만나볼 수 있다. 각 작품은 ‘차별금지법’ 조항을 주제로 그려졌다. 작가는 여러 종류의 차별로 고통받는 이들의 상처를 표현하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대주제인 ‘그래도 우린 연주를 해야 한다’에는 최근 부각되는 인권 이슈 ‘혐오 감정’에 대한 생각이 담겼다. 이 작가에 따르면 요즘의 혐오 감정은 ‘레드 콤플렉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과거 타인을 ‘빨갱이’로 내몰던 혐오 감정이 최근에는 해외이주민, 성소수자, 세월호 유가족 등을 향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작가는 ‘혐오 감정이 마음에 남아 상처를 입었더라도, 스스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발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제를 설명했다. 이 작가가 ‘인권 화가’로 활동하게 된 것은 지난 2011년부터다. 당시 인권운동가 박래군씨와 함께 떠난 ‘천리길 인권여행’이 계기가 된 것. 이 작가는 제주도부터 비무장지대(DMZ)까지 오르며 인권 현장을 찾아다녔다. 제주 4·3 피해자, 5·18 유가족,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 성소수자, 남영동 대공본실 고문 피해자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뭉뚱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럼에도 투쟁하는 이들을 보면서 ‘나도 언제든 저들처럼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권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어 인권 연구소 ‘창’에 연구원으로 들어가고, 미술 작가인 본업을 살려 그림으로 인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가는 우리 사회를 꼬집는 작품도 남겼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표현한 ‘가려진 정의, 가려야 할 정의’, 장자연 사건을 그린 ‘그녀는 무대에 서야한다’ 등 작품이 대표적이다. 그는 세월호 잠수사들이 목격한 현장을 그림으로 옮기고, 청와대 앞에서 행진 사위를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



에게 길게그림을 그려 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서울에 작업실을 두고 있는 이 작가에게 광주는 꼭 한번 오고 싶었던 곳이었다. 과거 인권을 짓밟히고 공격받았던 곳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어서다. 서울 전시회에 들렀던 동행 상임운영위원 이소아 변호사가 광주 전시회를 제안하자 한달음에 광주를 찾았다.

“이번 전시를 통해 역사의 현장 금남로를 걸어볼 수 있어 감동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언젠가는 꼭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싶어

요.” 이 작가는 앞으로도 계속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싶어 한다. “지치지 않고 서로 연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 작가는 “타인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타인을 위해 촛불을 들고, 연대하며 좋은 세상,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을 있는대로 그려서 세상에 알리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끝없이 투쟁하며, 인권 현장의 느낌을 그림에 담아 소통을 계속하겠습니다.”

/유연재 기자 yiyu@kwangju.co.kr

광주교육청 감사관에 배민 공공기관감사국 수석감사관

배민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수석감사관이 광주시교육청 3급 상당 개방형직위인 감사관에 최종 선정됐다.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배 감사관을 전문기적 능력, 변화관리 능력, 리더십 등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감사관은 “정량화 조직문화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부정부패 예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감사원의 최신 감사기법 등을 접목해 광주시교육청의 감사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근무 경험을 적극 활용해 원칙에 입각한 감사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배 선임 감사관은 지난 1998년 감사원에 7급으로 입사했으며 2007년 행정안전부감사국, 2009년 검찰관실 부감사관, 2016년 감사청구조사국 수석감사관, 2017년 공공감사운영단 운영심사관 수석감사관 등을 거쳤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103세 할리우드 명배우 커크 더글러스 별세

백수를 누린 할리우드 명배우 커크 더글러스가 별세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의 아들이자 역시 할리우드 스타인 마이클 더글러스(76)는 이날 페이스북 성명을 통해 부친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1916년 미국 뉴욕에서 가난한 유대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더글러스는 ‘아메리칸 드림’의 주인공이다. 드라마 예술아카데미에 진학해 배우의 꿈을 키웠다. 1946년 ‘마사 아이버스의 위험한 사랑’으로 스크린에 데뷔했다.

그는 1949년 영화 ‘웬 피인’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이름을 알렸고 이후 ‘열정의 랩소디’ ‘해저 2 만리’ ‘OK 목장의 결투’ ‘스파르타쿠스’ 등 영화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다. 약 70년간 활동하며 90개가 넘는 영화에 출연한 더글러스는 1991년 미국영화연구소(AFI)에서, 1999년 미국영화배우조합(SAG)에서 각각 평생 공로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은퇴선수협-덕수 법률 지원 협약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회장 안경현·이하 한은회)가 지난 5일 법무법인 덕수(대표변호사 김형태·담당 변호사 윤영환)와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권익향상과 한국야구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은회 소속 회원들은 법률 상담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안경현 회장은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이 야구 현장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나, 권익이나 복지 부

분에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속 회원들이 부담 없이 법률상담 및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은퇴선수들이 든든한 보호망을 가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윤영환 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들에 대한 법률상담 및 교육, 한은회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법률자문, 공동사업의 추진 등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협업을 시작한다”며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권익향상과 한국야구 전반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문승창(사립)·송건희씨 장남 정원근, 이종태(전 광주일보 기자)·김경희씨 장녀 이영양=8일(토) 낮 12시 중남 천안시 야산역사내 CA웨딩컨벤션 2층 루체홀. ▲안영복·유영희씨 차남 대명(경찰관)군, 윤목현(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한광숙씨 장녀 희다(경찰관)양=8일(토) 오전 11시 상무지구 힐리데이인광주호텔 2층 라벤더홀. ▲양효술(조선대학교 대학협력부처장)·이연옥씨 장남 우승근, 김기승·김현숙씨 차녀 나영양=16일(일) 오후 2시 광주 드메르웨딩홀 2층 CN홀.

중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월례회의=11일(화) 오후 6시 지원회의실3층 062-225-

5636.

동문회 ▲조선대학교 전기공학학과 총동문회 정기총회=14일(금) 17시30분 영광CC골프텔 3층세미나실 010-3634-4577.

알림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

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

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세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한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대)=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